

- 주요 뉴스: 미국 1월 소매판매, 전월비 큰 폭 증가. 경기 연속 회복 기대 확산
 - 미국 의회예산국, 정부 부채상한 합의 실패 시 7~9월 채무불이행 발생할 가능성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 대출금리는 동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1월 소매판매 및 금리인상 전망 강화 등이 영향
주가 상승[+0.2%],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기 연속 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건설관련주 강세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 가능성 등으로 5주래 최고치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5%,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예상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84.3원, +2.1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주요지표					주요지표				
		2/15일	2/14일	전일대비			2/15일	2/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47.6	4,136.1	0.28%	국채금리 10y	미국	3.80%	3.74%	6bp
	유럽	464.36	462.40	0.42%		독일	2.48%	2.44%	4bp
	중국	3,280.5	3,293.3	-0.39%		영국	3.49%	3.52%	-3bp
	일본	27,502	27,603	-0.37%	CDS 5y	한국	41bp	41bp	0bp
	한국	2,427.9	2,465.6	-1.53%		중국	63bp	62bp	1bp
환율	달러지수	103.85	103.23	0.59%	위험지표	EMBI+	-	381	-
	유로화	1.0689	1.0738	-0.46%		VIX	18.23	18.91	-3.60%
	엔화	134.16	133.16	-0.75%		WTI유	78.59	79.06	-0.59%
	위안화	6.8550	6.8279	-0.40%	원자재	구리	402.4	407.5	-1.25%
	원화	1,282.2	1,269.4	-1.00%		금	1,836.0	1,854.3	-0.9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월 소매판매, 전월비 큰 폭 증가. 경기 연착륙 기대 확산

- 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3.0% 증가하여 전월(-1.1%) 및 예상치(1.8%) 큰 폭 상회. 이번 결과는 양호한 노동시장 및 임금상승, 가계의 대출 능력 향상 등에 기인. 부문별로는 자동차, 가구, 외식 등이 이번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
- 특히 이날 발표된 1월 산업생산(전월비 증가율:-1.0%→-0.0%), 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32.9→-5.8) 등 다른 제조업 지표들도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 이에 향후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1/4분기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
- 1월은 통상적으로 연초 소비가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존재하기에 2월에는 다시 부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 소비는 작년 12월 결과처럼 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1월 결과는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Wrisghtson ICAP)
- 다만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소비부문의 일부 왜곡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투자은행의 경기 연착륙 전망 제시가 증가. 아울러 BofA는 상당 기간 소비자의 견조한 현금 보유 및 대출 능력이 지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
-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연준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FWDBOND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의회예산국, 정부 부채상한 합의 실패 시 7~9월 채무불이행 발생할 가능성

- 의회에서 부채상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는 금년 7~9월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 다만 향후 정부지출 및 수입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정확한 채무불이행 발생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

■ 미국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2개월 연속 상승. 주택경기 저점 통과 기대 증가

- 2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42로 전월(35) 및 예상치(37) 상회. 이번 결과는 작년 9월 이후 최고치. 해당 지수는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하고 있지만 최근 2개월 연속 상승이 나타나 주택경기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제기

■ 미국 백악관,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 검토

- 주요 언론들은 백악관이 국가경제위원장으로 내정된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대체할 인사로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굴스비 총재의 통화정책 관련 성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과거 과도한 긴축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비둘기파에 가깝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편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ECB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 임금과 물가의 연쇄 상승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한편 스페인 중앙은행의 데 코스 총재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최근 전망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

■ 영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년 9월 이후 최저. 통화정책 전환 유도는 불충분

- 1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은 10.1%로 전월(10.5%) 대비 하락했고,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저 수준. 최근 높은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 시 단기간 내에 현행 통화정책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KPMG의 Yael Selfin)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 대출금리는 동결

- 2월 이후 MLF를 통해 4990억위안(순공급액은 1990억위안)을 공급했다고 발표.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신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대출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2.75%를 적용

■ 국제금융기구(IIF), 1월 신흥국 주식 및 채권시장의 순자금유입 규모는 2년래 최대

- 1월 신흥국 주식 및 채권시장의 순자금유입 규모는 657억달러로 작년 전체 규모(309억달러)를 상회. 이번 결과는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및 금리인상 속도 조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이 반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16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쿡 위원 강연. 미국 1월 생산자물가 및 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향후 통화량 감소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될 전망 - WSI

(High Inflation Will End Soon)

- 연준이 '20년 3월 대규모 자산매입을 시작한 이후 '22년 3월까지 M2 통화공급이 41% 증가(연환산 기준). 이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며, 이와 같은 대규모 통화공급은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
- 하지만 지난 9개월 동안에는 연준의 개입으로 통화공급이 대규모 증가에서 축소로 전환되었고, M2 통화공급의 경우 3.2% 감소. 이러한 변화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 다만,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 등을 고려 시 연준은 양적긴축 및 고금리 유지에 나설 가능성

■ 연준의 양적긴축 지속 전망,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기대는 시기상조 - Financial Times

(Investors should not expect much relief from volatility)

- 경기침체 우려가 상존하지만 연준이 단기간 내에 양적긴축에서 양적완화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편. 이는 팬데믹 기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행된 대규모 통화공급 증가가 실제 경제성장 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며, 관련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 향후 금리인상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적긴축의 지속은 위험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특히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 가계와 기업의 건전성이 경기침체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양적긴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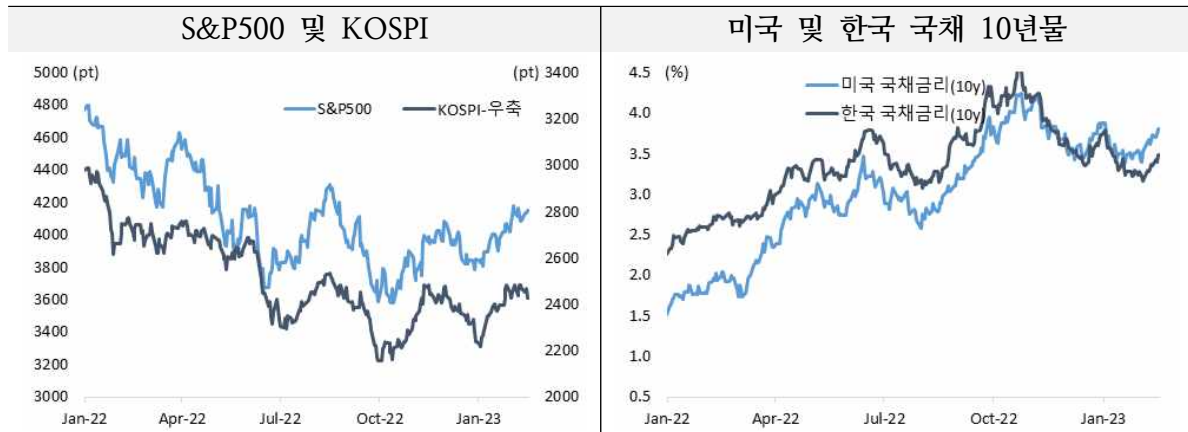
■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사임,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될 가능성 - WSI

(Lael Brainard's Fed Departure Could Leave Immediate Imprint on Inflation F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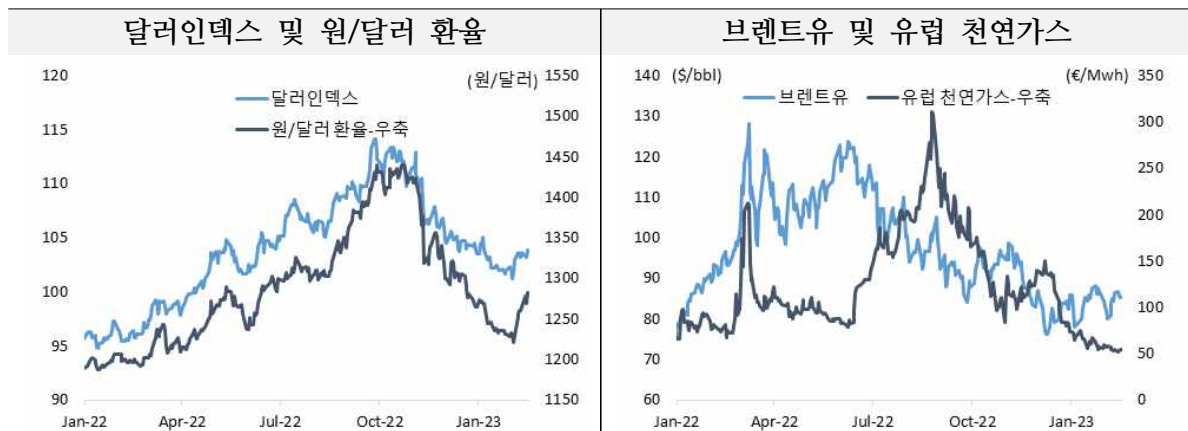
- 국가경제위원장으로 내정되어 2/20일 사임할 예정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연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둘기파 성향의 고위 인사. 특히 물가상승세 둔화를 기대하면서 고용을 중시
-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5월 및 6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반대할 수 있는 인사였으나 이번 사임으로 공격적 금리인상 및 경기 침체 리스크가 증대(LH Meyer). 비슷한 성향의 신임 부의장이 임명되어도 '14년부터 연준에 합류한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 행사는 어려울 전망(SGH Macro Advisors)
- 지난 20여 년간 부의장은 뉴욕 연은 총재와 함께 의장의 핵심 정책 고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명한 경제학자가 역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시카고 굴스비 총재를 차기 부의장으로 검토

-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 통화공급 규모는 연준의 양적긴축 규모 초과 - Financial Times**
(BoJ YCC > Fed QT)
 -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당국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제어(YCC)를 통해 국채매입 지속.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규모가 연준의 양적긴축 규모를 초과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 증가를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
 - 또한 일본은행의 YCC가 1월 글로벌 증시 회복 및 일정 수준의 채권수익률 상승 억제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Apollo의 Torsten Slok). 우에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는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성을 언급. 그러나 YCC의 포기 또는 일부 변경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가능성
- **아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대. 달러화 강세 가능성을 대비 - 블룸버그**
(Asia Central Banks Rebuild Reserves as Fed Rate Bets Accelerate)
 - 인도, 대만, 동남아 국가 등은 지난해 1~10월 환율 방어를 위해 2,430억달러 상당의 외환보유액을 소진. 하지만 11월 이후 이의 절반 이상인 1,320억달러를 재축적. 인도의 경우 작년 1,000억달러를 소진한 이후 최근 3개월 간 500억달러 가까이 확충
 - 이러한 변화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로 대부분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지난 3개월간 5% 상승했으나 최근 이러한 기대에 의구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 또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을 재평가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 제기
- **미국 소비자물가, 서비스물가 불안 등으로 안정에 상당 기간 소요 가능성 - 블룸버그**
(The Inflation Boogeyman Now Hides in Services)
- **미국 달러화 강세, 일부 신흥국의 달러화 페그제(PEG) 유지에 장애물 - Financial Times**
(Strong dollar fuels wave of emerging market currency devaluations)
- **OPEC+의 감산 지속 결정, 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담 - 블룸버그**
(The OPEC+ Oil Plan for 2023 Brings New Inflationary Risks)
- **신흥국의 경제 발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무게를 둘 필요 - 블룸버그**
(Economic Development Is a Fairy Tale for Poor Natio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